

# 정부·韓銀 ‘전방위 금융지원’

## “실물경기 하강 막자” ... 中企·수출기업 89조원 ‘수혈’

### 위기기업 집중 지원 ... 11일 금통위 금리인하 가능성

내년에 실물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 국책은행 등이 전방위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책은행들은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규모를 내년에 대폭 확대하고 이중 60% 이상을 경기침체의 골이 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반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중소·수출기업 집중 수혈 ... 국책銀 89조원 공급 = 정부는 경기 위축과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한 많은 자금을 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에 대한 3개 국책은행의 내년 자금 공급액은 89조원으로 올해 75조원보다 18.7% 늘어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규모를 올해 26조원에서 내년 32조원으로 늘리고 이중 60%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같은 기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21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자금 공급규모를 올해 28조원에서 내년 32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중 내년 중소기업 지원은 12조원으로 올 한해 계획한 것보다 4조원 늘린다. 사실상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내

년 중소기업 대출을 올해보다 6조원 정도 늘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대출금의 만기연장과 분할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내년에 중소기업에 올해보다 2조원 이상을 더 공급하기로 했다.

◇중기대출 보증 100% 확대 검토 =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월19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을 85%에서 95%로 확대한 데 이어 100%로 늘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시적인 100% 보증을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서를 가져오면 은행이 쉽게 중소기업 대출을 해 주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자금에 한해 보증한도를 기업당 3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비율도 100%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보와 기보에 5천억원의 추가 출연해 보증규모를 올해 42조원에서 내년 48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건설·차·반도체 등 위기기업중 금융지원 =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이들 기업의 회사채를 묶는 프라이머리 담보보증권(CBO)을 지난달 27일 1차로 4천억원 발행했을 때 건설사 회사채의 편입비중이 10%에 머물렀다. 그러나 오는 11월 2차로 2천억원을 발행할 때부터는 10% 이상으로 늘어난다. 프라이머리 CBO는 이달 말까지 1조 원, 내년에는 2조원이 발행된다.

이르면 이번 주에 출범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건설사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도 사들이기로 했다. 자동차업체가 내수축진 방안의 하나로 할부금융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건의함에 따라 채권시장안정펀드의 매입 대상에 할부금융채를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반도체 업체에 대한 지원도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신속 지원프로그램의 대상을 건설사 뿐 아니라 자동차·조선업·반도체·석유화학·섬유 등 10대 주력업종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리인하로 경기 떠받친다 = 오는 11월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현재 4.00%인 기준금리의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다. 인하폭은 0.50% 포인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편이며 0.75% 포인트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급속히 하강하는 경기를 감안할 때 큰 폭의 금리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기하강으로 실물위축이 심화하면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 대주건설 등 28개 건설사 승인

## 대주단 신청 30곳 가운데 ... 광주·전남선 3곳 가입

대주건설을 비롯 대주단 협약 가입을 신청한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사 3곳 모두가 가입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주단 가입을 신청한 30개 건설사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 3곳을 비롯 28곳에 대한 가입이 승인됐다. 또 대주단 신청 회사 가운데 2곳은 가입 여부를 놓고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대주단에 가입한 28개사는 해당 건설사의 채무(대출채권, 지급보증 등)가 1년 범위내에서 상환이 유예된다. 또한 신규자금지원에 동의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을 받게된다.

대주단 가입 건설사들의 입장에서 자금운영에 숨통이 트이는 한편, 영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튼튼한 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된 셈

이다.

은행연합회는 또 국내 건설사들의 대주단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도 관심을 쏟기로 했다. 연합회는 우선 대주단 협약 신청시 해외의 주주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또 향후 대주단 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청 기업에 대한 심사 기간을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주단 협약이 빨리 신청할수록 협약적용 승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한 내 협약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주단 협약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일부 금융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일부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 공공임대 주택 표준건축비 16% 인상

## 입주자 보증금·분양 전환가 높아질 듯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임대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16% 인상됨에 따라 향후 공급될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평균 16% 상향조정돼 9월 이후 입주차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가 3.3㎡당 277만원에서 320만원으로, 평균 43만원 가량 오른다.

건축비 인상은 임대보증금 및 분양전환 때 분양가 상승 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입주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표준건축비는 택지비, 가산비 등과 함께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2004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됐다. 이번 건축비 조정에는 지난 4년간 노무비(4.4%), 자재비(2.3%), 법정경비(1.4%) 등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이번 건축비 현실화로 그동안 위축됐던 민간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민간의 공공임대 건설이 활성화 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높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 ‘최저 임금제’ 적용 범위 완화 논란

## 노동부, 수습기간 6개월로 연장 등 법 개선방향 공개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최저임금제의 적용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가운데 본인이 명시적으로 감액에 동의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을 8일 공개했다.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자인 수습근로자의 사용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줄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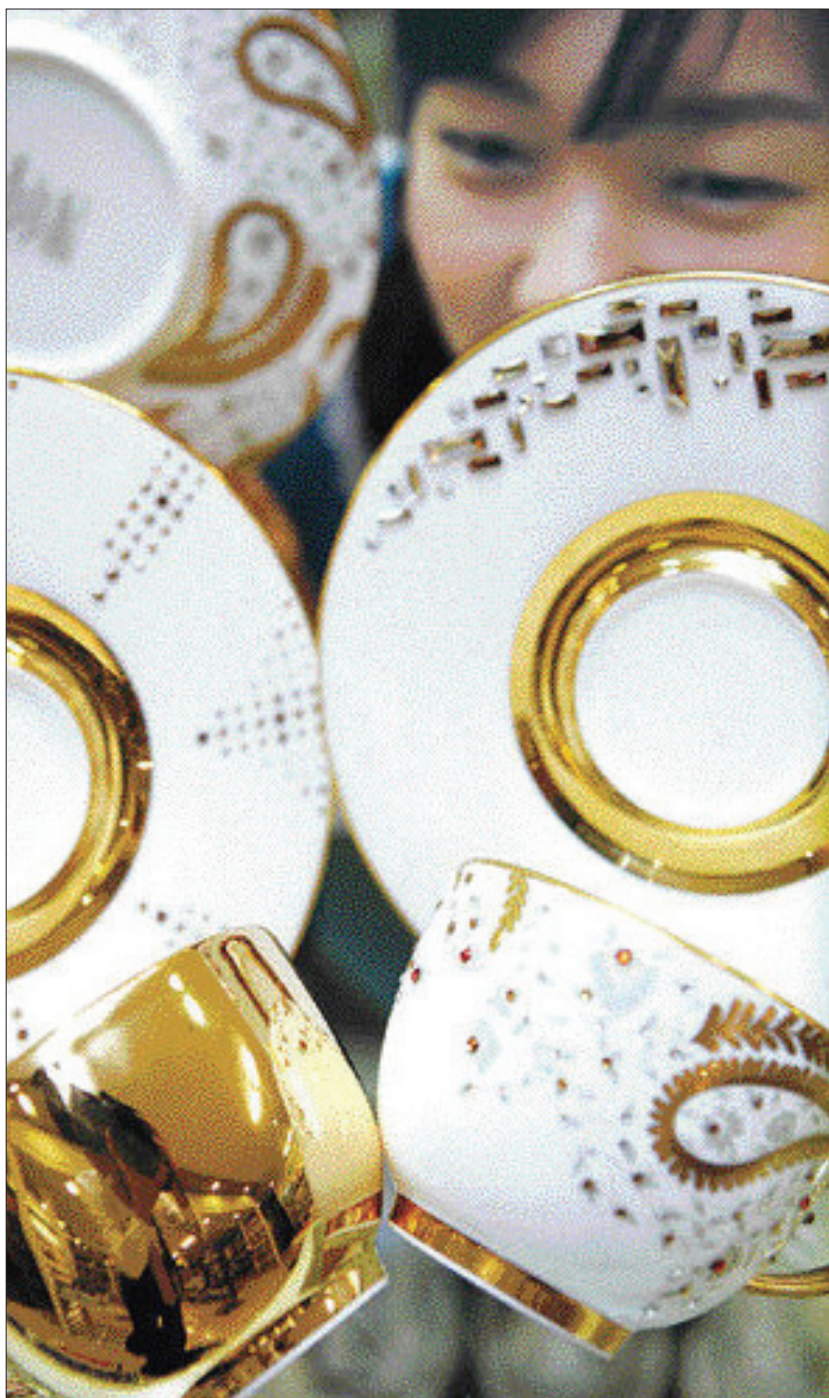
이와 같은 개정 방향은 김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 발의한 여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일부 내용이(지역별 차등화 방안 제외)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것이다.

여당 개정안 가운데 숙박 및 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과도한 액수의 공제를 막기 위한 적정 평가방법 및 한도액 규정 등을 마련하되 조항 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용자들에게 저임금 노동자를 대량으로 제공하기 위해 저임금 계층의 빈곤을 외면하고 사회 양극화와 경제위기를 부추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3천770원(하루 8시간 기준 3만160원)이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원(하루 8시간 기준 3만2천원)으로 확정돼 있다. /연합뉴스



중동 수출 한국도자기 8일 한국도자기 서울 청계8가 전시장에서 직원들이 중동지역에 수출하는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프라우나’ 도자기를 살펴보고 있다. 중동 부유층들은 골드와 주얼리로 치장한 화려한 디자인을 특히 좋아해 한국도자기는 이들 고급 제품을 중심으로 중동시장에 수출을 늘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 코스피 폭등 ... 한달만에 1100선 탈환

## 기관·외국인 ‘쌍끌이’ 어제 76.92P ↑

코스피지수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1개월 만에 1,100선을 탈환했다.

8일 코스피지수는 미국 증시의 반등과 신뉴딜정책 기대감, 저가매수세 유입 등으로 상승 출발한 후 상승폭을 확대한 끝에 76.92포인트(7.48%) 오른 1,105.05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14.55포인트(4.82%) 급등한 316.71을 기록했다.

코스피시장에서 기관은 6천945억원의 순매수하며 장세를 이끌었고, 외국인이 1천205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원했으나 개인은 7천709억원을 팔았다. 추가 급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27.20원 떨어진 1,448.3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손길승 前 SK그룹 회장

## SK텔레콤 명예회장 추대

손길승(67) 전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하지만 손 명예회장은 “경영에는 간여할 뜻이 없다”고 밝혔으며 SK텔레콤도 명예회장 추대에 대해 “에우차원”이라고 말해 항간에서 제기된 경영 복귀설을 일축했다.

8일 오전 손 명예회장은 SK텔레콤의 김신배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대식을 겸한 조촐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회사측은 말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빛테크마켓	생산직(자동차부품조립) 정규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9	062-376-9752
㈜동천미디어	2009년 정규직 광고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9	062-224-5401
경기합동경동택배(주)	(경동택배)물류관리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9	061-399-2402
㈜본디자인	인테리어 설계 및 현장 시공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0	062-232-9044
엔프라이나(주)	엔프라이나 화장품 판매사원(경력직 우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1	010-3608-9913
금호월드	시설관리 경력직 대리급	고졸/경력1년	2000~2200	12/11	062-350-8022
㈜현대코리아	영업사원 남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12/12	062-956-6852
프랑스	레스토랑 지배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2	062-233-7898
한국쌍용회차	[주5일근무/내근제]비서직영남녀 TM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62-410-1414
KFG(주)	2009년 금융전문가(FA) 신입 및 경력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62-382-4114
㈜세오	사무/경리/전산/캐드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16	062-972-8060
신안중공업(주)	철강 및 형강류자재 구매,관리 경력직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12/16	062-717-5500
사이침	[광주]냉장/냉동식품 영업(거래선관리)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2/17	02-796-7101

<광주접속번호 512-6210 제공>

# 발암 의심물질 다이옥신 과다 검출

# 아일랜드 돼지고기 수입 검역 중단

## 올해 335t 들여와

아일랜드 돼지고기에서 발암의심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외신보도와 관련, 농림수산물부는 8일 아일랜드 돼지고기와 가공품에 대한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아일랜드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시·도지사에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의 판매중지를 지시했다. 검역원은 이미 검역을 통과한 아일랜드 돼지고기의 출고를 보류하고 유통 경로 확인에 들어갔다.

검역당국에 따르면 올해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제품은 모두 335t(15건), 이 가운데 9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은 감자탕용 목뼈와 돼지내장 등 90t(4건)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히 아일랜드 내 어떤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 문제인지 알려지

지 않아 오염된 돼지고기의 국내 반입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으면 추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외신들은 아일랜드 정부가 자국 동물사료와 돼지고기 비계에서 허용기준치의 80~200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을 확인하고 전담 회수조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이 지난 9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도 아일랜드에서 도축된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데 따라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수입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일본 식품당국 관계자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내렸으며, 아일랜드 정부와 오염 육류를 조사해 회수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수입하는 돼지고기 중 아일랜드산은 1%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